

石北 申光洙의 송별기록 『鶴歌贈法正東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eokbuk Sin Gwang-su's Parting Record *Hakgajeungbobjeongdongui*

강 순 애 (Kang, Soon-Ae)**

◁ 목 차 ▷

- | | |
|------------------|-----------|
| 1. 서 론 | 3.2 내용 분석 |
| 2. 申光洙의 생애와 시 | 4. 결 론 |
| 3. 『鶴歌贈法正東歸』의 분석 | <참고문헌> |
| 3.1 서지적 분석 | |

< 초 록 >

이 글은 새로 발견된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의 송별기록 『학가증법정동귀(鶴歌贈法正東歸)』를 대상으로 신광수의 생애와 시 및 『학가증법정동귀』의 서지적·내용적 측면을 연구한 것이다.

신광수(1712-1775)의 본관은 고령이고 자는 성연, 호는 석북, 오악산인이다. 영조 26년(1750)에 진사 급제를 하였다. 영조 48년(1772)에 기로정시에 장원하여 승지를 제수 받았고, 이어 돈녕부도정, 영월부사가 되었다. 영조 51년(1775)에 우부승지를 제수 받았다. 그해 64세로 사망하였다. 신광수는 조선조 후기의 남인시단의 대표적인 시인이었고, 이현경은 신광수를 ‘시호(詩豪)’라 하였다. 그는 특히 과시(科詩)와 악부(樂府)에 능하여 『관산용마(關山戎馬)』와 『관서악부(關西樂府)』를 지었고, 『석북집(石北集)』 16권 8책과 『석북과시집(石北科詩集)』 1책이 남아 있다. 이 『학가증법정동귀』는 신광수가 영조 40년(1764)경에 법정(法正) 정법조가 동쪽으로 돌아갈 때 이별의 슬픔을 담아 서술한 것이다. 자필본은 깨끗이 정서된 것이고, 『석북집』권8에 실린 글은 문집이 작성될 당시 일부 수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필첩의 원래 크기는 26cm(세로) × 37.5cm(가로)이다. 필사본 전체는 14줄인데 부제목 2줄, 본문 11줄, 끝에 ‘石北生’이라고 씌여 있어 신광수가 저작자 겸 필사자임을 알 수 있다. 석북은 이 송별기록에서 ‘소행반초(小行半草)’의 특징인 작은 행서체와 초서체를 잘 썼고, 행초서는 위에서 지적인 순화각첩의 고법 중 왕희지의 필법에 가까우면서도 일부 글자에서는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있다.

석북이 자필로 쓴 원문의 기록과 문집의 내용을 비교하면, 첫째, 원문의 기록에는 제목이 없고, 문집에는 ‘鶴歌贈法正東歸’라고 제목을 붙였다. 둘째, 부제목과 내용에는 교정된 부분이 있다. 셋째, 이 시는 칠언시 12운 23행이고 17행은 육언이다. 제1행부터 제6행까지는 약(藥)자 운통의 입성운자이고 제7행부터 제23행까지는 지(支)자 운통의 평성운자이다. 이 칠언시는 의미상 세 단락으로 나뉜다.

이 연구는 향후 민간기록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 국어학계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석북, 신광수, 석북 신광수, 송별기록, 『鶴歌贈法正東歸』

* 본 연구는 2017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 전공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7년 5월 26일 최초심사일: 2017년 6월 19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20일

<ABSTRACT>

This paper studies *Hakgajeungbobjeongdongui*, the newly discovered parting record by Seokbuk Sin Gwang-su, by examining Sin Gwang-su's life and poetry as well as *Hakgajeungbobjeongdongui*'s bibliography and content.

Sin Gwang-su (1712-1775)'s family clan was Goryeong, his courtesy name Seongyeon, and his pen name Seokbuk or O-ahksanin. He passed the jinsa in the 26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1750). In the 48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1772) he received the highest score in the girojeongsi and subsequently became donnyeongbudojeong and Yeongwol busa. In the 51st year of King Yeongjo's reign (1775), he was given the responsibility of ubuseungji. He died the same year at the age of 64. Sin Gwang-su was a representative poet of the Southern faction in late Joseon, with Yi Heon-gyeong naming him "Siho." He was especially skilled at gwasi and akbu, writing *Gwansanyungma* and *Gwanseoakbu*, with 16 volumes and 8 books of *Seokbukjib* and 1 book of *Seokbukwasijib* remaining. Sin Gwang-su wrote the parting record *Hakgajeungbobjeongdongui* in the 40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1764) to express the sadness of parting when Beobjeong Jeong Beom-jo returned east. The handwritten version is neatly written, and the writing in Book 8 of *Seokbukjib* is thought to have been partly revised at the time the anthology was made. The specimens of handwriting measure 26 cm vertically and 37.5 cm horizontally. The handwritten version has 14 lines, with 2 lines for the subtitle, 11 lines for the body, and the word "Seokbukaeng" at the end which show that Sin Gwang-su is the author and the penman. Seokbuk adeptly wrote the small script semi-cursive style and the cursive style, both of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sohaengbancho." His semi-cursive and cursive style closely resembles that of Wang Xizhi among the chunhuagetic method, yet retains Seokbuk's own individuality.

A comparison of Seokbuk's handwritten original record and his work in the anthology reveal firstly, that the original record has no title while the latter was given the title of "*Hakgajeungbobjeongdongui*." Second, there are revisions to the subtitle and the content. Third, the poem is a 12-stanza 23-line heptasyllabic poem but Line 17 has six syllables. Line 1 to Line 6 has the character "yak" as the rhyming character in the entering tone, while Line 7 to Line 23 has the character "ji" as the rhyming character in the neutral tone. The heptasyllabic poem is divided into three paragraphs content-wise.

This study will be used hereafter in the most basic studies of private records as well as in those of bibliography, record management, history and Korean language.

Key words: Seokbuk, Sin Gwang-su, Seokbuk Sin Gwang-su, Parting Record,
Hakgajeungbobjeongdongui

1. 서론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 1712-1775)는 숙종~영조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시인이다. 영조 26년(1750)에 진사 급제를 하였다. 영조 48년(1772)에 기로정시에 장원하여 승지를 제수 받았다. 영조 51년(1775)에 64세로 사망하였다. 그는 '해동의 백낙천'이라는 별호가 붙을 정도로 시문에 뛰어났으며, 조선 후기 오광운(吳光運), 강박(姜樸), 채제공(蔡濟恭), 정범조(丁範祖) 등과 남인 시단을 이끌었다. 남인 지배층을 비롯하여 양인, 천민, 노비, 기생들을 포함하는 피지배층과도 어울려 시를 짓고 교유한 사람들에게는 시를 지어 주었다. 그는 특히 과시(科詩)와 악부(樂府)에 능하여 『등악양루탄관산용마(登岳陽樓歎關山戎馬)』, 『관산용마(關山戎馬)』로 약칭됨,』와 『관서악부(關西樂府)』 등을 저술하였으며 『석북집(石北集)』 16권 8책과 『석북과시집(石北科詩集)』 1책이 남아 있다.

최근에 발굴되는 자료 중에는 문집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 많고, 글의 내용이 기존의 문헌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어 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필자는 인사동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석북 신광수의 『학가증법정동귀(鶴歌贈法正東歸)』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필록은 기존의 석북의 간찰들에 비하면 그의 글씨체를 잘 보여주는 진필본이며, 마치 누군가 비장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물건인 듯 내 마음에 들었다. 현재는 나의 애장품의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소개하는 『학가증법정동귀(鶴歌贈法正東歸)』는 석북이 영조 40년(1764)경에 해좌(海左) 정범조(丁範祖, 1723-1801)가 동쪽으로 돌아갈 때 학가(鶴歌)를 지어 보낸 것이다. 이 시는 신광수의 문집인 『석북집』 권8에 들어 있다. 내용상의 차이도 약간 있고, 석북의 자필로 씌어진 송별기록이고 행·초서 글씨체도 완미할만하여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새로 발견된 송별기록인 『학가증법정동귀』를 중심으로 신광수의 생애와 시 및 『학가증법정동귀』가 지니는 자료의 서지적·내용적 측면을 분석하되, 현재까지 문학적 성과들이 많이 이루어져 문학적 탐토에 치중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향후 민간기록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 국어학계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성파로 활용될 것이다.

2. 申光洙의 생애와 시

신광수의 생애와 시에 대해서는 동생 신광하(申光河, 1729-1796)가 쓴 행장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그의 본관은 고령(高靈)이고 자는 성연(聖淵), 호는 석북, 오악산인(五嶽山人)이다.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신호(申濤)이며 성품이 엄하고 결백하며 총명하였으나 일찍 과거를 폐한 인물

이다. 어머니는 통덕랑(通德郎) 이휘(李徽)의 딸이다. 신광수는 숙종 38년(1712)에 가회방(嘉會坊) 재동(宰洞) 외가에서 태어났다.¹⁾ 5세에 이미 글을 짓고, 말을 하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필획(筆劃)이 날아 움직이는 듯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갔다. 5세와 6세에는 글을 읽는데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억력이 좋았다. 장노(長老)들이 고실(故實)을 찾다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석북이 옆에 있다가 출처를 알려주었는데 매우 정확하였다.²⁾

영조 26년(1750)에 진사 급제를 하였으나 이후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향리 한산(韓山)에 칩거하여 빈곤한 생활을 하였다. 영조 37년(1761)에 음직으로 영릉참봉(寧陵參奉)을 제수 받았다. 영조 40년(1764)에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로 탐라(耽羅)에 가서 그곳 풍토, 산천, 조수, 항해 상황 등을 적어 『탐라록(耽羅錄)』을 지었다. 그 뒤에 선공봉사(繕工奉事)·돈녕주부(敦寧主簿)·서부도사(西部都事)를 거쳐 연천현감(漣川縣監)을 지냈다. 영조 48년(1772)에는 기로정시(耆老庭試)에 장원하여 승지를 제수 받았다. 그해 3월에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 9월에 영월부사(寧越府使)가 되었다. 영조 51년(1775)에 우부승지(右副承旨)를 제수 받았으나 2월에 파직되었고, 그해 4월 장릉제관(長陵祭官)으로 차출되었다가 26일 64세로 사망하였고, 6월에 한산(韓山) 선영(先塋)에 장사 지냈다.³⁾ 저서로 『석북집』 16권 8책과 『석북과시집』 1책이 전한다.⁴⁾

신광수는 두드러진 벼슬자리에 오르지 못했지만 동생 신광연(申光淵, 1715-1778), 신광하(申光河, 1729-1796)와 함께 조선조 후기의 남인시단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다. 그의 시에 대하여 채제공은 “고문사(古文詞)를 힘써 공부하여 좌구명과 사마천의 글을 읽었다. 특히 시에 뛰어나 시격이 높은 것은 당시(唐詩)와 같았고, 시격이 낮은 것은 창명(滄溟) 이반룡(李攀龍)과 엄원(兪園) 왕세정(王世貞)을 능가할 정도이고 동인의 누습을 벗어났다”라고 평하였다.⁵⁾

조선 정조연간(1777-1800)에 정범조(丁範祖, 1723-1801), 채제공(蔡濟恭, 1720-1799)과 함께

1) 申光洙, 『석북집(石北集)』 권16, 『行狀』.

“公諱光洙, 字聖淵, 號石北, 或稱五嶽山人, 高靈人也. … 生先府君諱滿, 僉知中樞府事, 性峻潔, 早廢舉. … 初娶星山李氏, 通德郎徽女, 以肅廟三十九年壬辰二月初三日未時, 生公漢師嘉會坊宰洞外氏第也. …”

2) 申光洙, 『석북집(石北集)』 권16, 『行狀』.

“… 五歲屬文, 發語輒驚人, 筆畫飛動, 人往往取去. … 蓋自五六歲, 不刻苦讀書, 好記覽, 長老徵故實, 或有疑, 公髡髮坐傍, 輒對以出某書幾卷幾板, 攷據不少錯. …”

3) 申光洙, 『석북집(石北集)』 권16, 『行狀』.

“… 今上三十六年庚午, 始舉進士, 時年三十九. … 遂絕意不復應舉, 五十始薦寧陵郎. … 甲申正月, 遷禁府都事, 奉使耽羅. … 紀其人民風土山川鳥獸羈旅困頓之狀, 有浮海錄. … 還京師, 遷繕工奉事, 陞禮賓直長. … 陞敦寧主簿. … 辛卯九月, 除漣川縣監, 明年壬辰春二月, 國家設耆老科, 限年六十許赴, 蓋特旨也. … 擢甲科第一人. … 蓋耆老榜四人, 並爲承旨故也. … 旋復除敦寧都正. … 除寧越府使. … 乙未春正月, 上問大臣, 耆科壯元申某何在, 卽除右副承旨. … 四月, 差長陵祭官, 雨於道, 感寒疾, 越四日, 遂考終于寓舍, 乃是月二十六日癸卯也, 享年六十有四. …”

4)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광수(申光洙). [검색일자 2017. 5. 7.]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32677>>

5) 蔡濟恭, 『변암집(樊巖集)』 권54, 『通政大夫承政院右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石北申公墓誌銘』.

“… 力攻古文詞, 嘗喜讀左丘明, 司馬遷之文, 尤長於詩, 高者步武李唐, 雖下乘, 欲凌駕滄畀, 槩不力去東方語不出也. …”

남인문단을 이끌었던 이헌경(李獻慶, 1719-1791)은 체제공의 문장을 ‘화국수(華國手)’라 하고 정범조와 신광수를 ‘시호(詩豪)’라 하였다.⁶⁾ 이에 의하면, 신광수는 조선조 18세기 중·후기 남인문단을 형성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며 그에게 있어 시는 그가 만났던 사람들의 신분 고하와 귀천을 불문하고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아쉬움을 드러낸 삶이자 교유의 매개체였다.

그에게 시인으로서 명성을 가져다 준 시는 35세이던 영조 22년(1747) 가을 한성시(漢城試)에서 이등(二等)으로 합격한 과시(科詩) 「관산용마」였다. 두보가 57세 때 유랑길에서 지은 오언율시인 「악양루(岳陽樓)」에 기초하고, 농촌의 피폐상과 관리의 부정과 횡포 및 하층민의 고난을 시의 소재로 택하여 두보의 추흥 8수 가운데 제2수와 제4수를 기본적인 정조로 삼았다. 그리고 각 구는 이별의 정한을 담은 구들을 중첩시킴으로써 애상을 고조시키는 방식을 이용했다.⁷⁾ 후에 기녀(妓女) 모란(牡丹)이 평양감사가 참석한 연광정(練光亭) 연회장에서 「관산용마」를 창하게 되었는데, ‘동정여천과시추(洞庭如天波始秋)’를 창할 때 석복이 춤을 추었다. 석복은 이 구절을 환상적 세계로 받아들여 신선이 된 기분으로 춤을 추어, 이로부터 석복의 별호(別號)를 ‘파시추(波始秋) 선생이라 일컫게 되었다.⁸⁾ 이후 「관산용마」는 서도지방의 영시(詠詩) 또는 율창(律唱)이라고도 하는 시창(詩唱)을 통해 널리 알려져서 서도창(西道唱) 무형문화재 29호로 지정되었다.

석복은 혜포(蕙圃) 강박(姜樸, 1690-1742)⁹⁾과 하정(芑亭) 이덕주(李德胄, 1696-1752)와 사우(師友) 간으로 지냈고, 동운(東運) 이성회(李聖會, 1718-1752)와는 가장 막역했던 사이였다.¹⁰⁾

혜포 강박은 당대의 이름난 문장가인 오상렴(吳尙濂, 1680-1707), 채팽윤(蔡彭胤, 1669-1731)의 시맥을 계승하였다.¹¹⁾ 강박은 석복의 시를 보고 크게 경탄하였고,¹²⁾ 석복이 강박을 스승으로 표현한 시가 남아 있다.¹³⁾

하정 이덕주는 석복을 천하의 기재(奇才)로 인정하였고,¹⁴⁾ 석복도 하정의 문장을 ‘대아지문(大雅之

6) 李獻慶, 『간옹집(良翁集)』 권13, 「答李台甫承延論文書」.
 “... 蔡伯規之文。華國手也。非僕所可望。法正, 聖淵又皆一時之詩豪。...”
 7) 심경호, “관산용마의 형식과 주제사상,” 『어문논집』 59권(2009), 59.
 8) 윤경수, “관산용마(關山戎馬)에 나타난 우국연민의 정 고찰,” 『우리문화회 제91회 정기학술발표회집』 (2009), 11.
 9) 沈慶昊, “18세기 중·말엽의 南人 문단,” 『국문학연구』 1권(1997), 154에 의하면. “혜포(蕙圃) 강박(姜樸, 1690-1742)은 진주인으로 자는 자순(子淳)이고, 호는 혜포라 하였다가, 뒤에 국포(菊圃)로 고쳤고, 만년에는 난소(蘭沼)라 하였다. 송곡(松谷) 이서우(李瑞雨) 생가 외손자이다. 문집은 『국포집(菊圃集)』 7권이 남아있다.”
 10) 申光洙, 『석복집(石北集)』 권11, 「與法正」.
 “... 僕少有浮譽。頗爲先輩期許。如蕙圃, 芑亭諸老。固在師友間。而芑尤生平所慕。交遊滿一世。而與李聖會最莫逆。...”
 11) 신장섭, “석복 신광수의 증시(贈詩)를 통한 교유층과 인간애의 고찰,” 『강원인문논총』 14(2005), 49.
 12) 蔡濟恭, 『변암집(樊巖集)』 권54, 「通政大夫承政院右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石北申公墓誌銘」.
 “... 姜菊圃樸負大名。高下一世人才。見君詩大驚歎。...”
 13) 申光洙, 『석복집(石北集)』 권10, 詩.
 “其二 斯文猶在世。吾黨詎無師。大業終難沒。希音久益知。青萍許價地。白首抱書兒。萬里關河外。秋風此去悲。”
 14) 李碩, 『가림이고(嘉林二稿)』 권4, 「祭石北申公文」.
 “... 公爲碩曰 芑亭公許我以天下之奇才也 ...”

文)’이라 하여 존경하였다.¹⁵⁾ 하정의 문장은 석북의 문장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성회와는 서로 시가를 지을 때에 옛 문인들의 의기가 넘침을 사모하여 자신들을 왕세정(王世貞)과 이반룡(李攀龍)에 비기기도 하면서¹⁶⁾ 의기투합하였다.

청장년기에는 번암(樊巖) 채제공, 몽서(夢瑞) 이현경, 진사 이동운(李東運)이 있고, 만년에는 벽암(癖菴) 홍한보(洪翰輔), 해좌(海左) 정범조, 여와(餘窩) 목만중(睦萬中, 1727-?) 등과 교류하였다.¹⁷⁾

신광수는 영조 50년(1774) 채제공이 평양감사(平壤監司)로 부임하게 되자 7언 절구체 108곡의 연작시인 『관서악부(關西樂府)』를 지어서 전별(餞別)의 선물로 주었다. 악부체시(樂府體詩) 『관서악부』는 평양의 형세와 경계, 요속(謠俗), 역대 홍망과 충효절협(忠孝節俠), 변새군려(邊塞軍旅)와 누대선방(樓臺船舫)으로부터 유흥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시화한 작품이다.¹⁸⁾ 시를 108수로 한정 한 것은 불교에서 108 고해(苦海)의 의미와 같이 늘 잊지 말고 경계(警戒)하라는 뜻으로 준 것이며 『석북집』 권10에 실려 있다.

몽서 이현경은 채제공, 정범조, 신광수, 신광하와 시회를 자주 열었고, 주고받은 시들이 『석북집』에 들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현경은 신광수를 시호(詩豪)라 하였다.

벽암 홍한보는 충주인으로 평생 은사(隱士)로 살아 뚜렷한 행적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석북의 문집에 벽암에게 보낸 시들이 남아 있어 교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¹⁹⁾

해좌 정범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 연간에 석북과 함께 시호로서 이름이 났고 여주 신록사를 유람하며 많은 시를 주고받았는데 그 시들이 『여강록(驪江錄)』에 남아 있다. 이경유(李敬儒, 1750-1821)는 『창해시안(滄海詩眼)』에서 두 사람의 시를 비교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였는데, “석북과 해좌가 여주의 신록사를 유람하였다. 당시 가을비가 막 개고 밝은 달이 막 떠오를 때였다. 석북은 ‘싸늘한 백담에 삼경에 나와 보니, 완전히 갠 청산이 양안에 있구나’라고 하니, 해좌는 ‘긴 강 한 면이 몽롱한 가운데 드러나고, 바람은 회나무 동쪽에서 비스듬히 불어오네’라고 하였다. 세간에서 두 시의 우열을 말하는 자는 모두 석북을 낫다고 하는데, 나는 해좌의 시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대개 석북의 시는 청상(清爽)함이 지나치다. 그래서 수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끝내는 해좌의 자연스러움만 못하다.”²⁰⁾라고 하였다. 이들 두 시인의 우열에 있어 모두 석북을 낫다고 하는데 이경

15) 申光洙, 『석북집(石北集)』 권14, 『祭芑亭李公文』.

“…窮天之學。貫古之識。超世之志。邁倫之行。魁傑卓犖之氣。奇偉宏博之論。廣之而彌六合。細之而入無間。遂乃振之以大雅之文。…”

16) 申光洙, 『석북집(石北集)』 권11, 『與法正』.

“…而與李聖會最莫逆。相與爲歌詩。慨然慕古作者意氣淋漓。酒酣。每語嘉隆間。王弇州(世貞), 李滄溟(攀龍)主盟海內。睥睨千古。亦文人得意事。相視一笑而已。…”

17) 申光洙, 『석북집(石北集)』 권16, 『行狀』.

“…少嘗與蔡尙書濟恭, 李學士獻慶, 李進士東運。爲布衣交。晚與洪翰輔, 丁範祖, 睦萬中游。六七人者。…”

18) 申章燮, “출사(出仕) 전까지 석북(石北)의 삶과 시의 면모,” 『語文論集』 41輯(2009), 186.

19) 申光洙, 『석북집(石北集)』 권5, 『驪江錄』上, 『附法正詩』.

“時人元不解憐才。獨有申生共一哀。身後曾無三畝在。眼中安得一詩來。義林流水依依過。白野新花漠漠開。寄語忠州洪翰輔。扁舟直欲載君回。”

유는 해좌가 더 낫다고 하였다.

여와 목만중은 석북의 재종제(再從弟)이며, 해좌와 더불어 여강에서 석북과 어울렸고 후일 석북이 서울에서 관료생활을 할 때 함께 시를 지었다. 석북은 영조 40년(1764) 여와가 비인(庇仁)의 현감으로 내려갈 때 송별시를 지어 주면서 작별하였다.²¹⁾

이외에도 평생 안산을 중심으로 교유한 이용휴(李用休, 1706-1782), 엄경응(嚴慶膺), 이광환(李匡煥), 유경종(柳慶種, 1714-1784), 강세황(姜世晃, 1713-1791), 조중보(趙重普), 이수봉(李壽鳳, 1710-1784), 최인우(崔仁祐), 유중림(柳重臨), 허필(許佖, 1709-1768), 임희성(任希聖), 안정복(安鼎福), 목만중(睦萬中), 채제공, 신택권(申宅權) 등과 ‘안산십오학사(安山十五學士)’로 불렸다.²²⁾ 이들은 남인(南人)과 소북(小北)의 사단(詞壇)으로 대부분 현실정치권에서 소외된 인사들로 현실의 세계에 대한 자유로운 인식을 가졌으며 이러한 정신세계는 문학이나 예술의 일정한 특징으로 나타났다.²³⁾

석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의 모순된 사회상을 사실적인 필치로 고발하려 노력하였기 때문에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횡포, 이에 고통 받는 민중들의 삶, 농촌의 피폐상 등을 작품의 소재로 채택하였다. 또 ‘해동의 백낙천(白樂天)[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이라는 별호가 붙을 정도로 시문에 뛰어났으며, 당시의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신화나 역사를 소재로 하여 민요풍의 한시를 창작하여 한국 한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²⁴⁾ 그는 남인 중심의 지배층을 비롯하여 양인, 천민, 노비, 기생들을 포함하는 피지배층과도 어울려 시를 짓고, 교유한 사람들에게는 시를 지어 주었다.

3. 「鶴歌贈法正東歸」의 분석

신광수의 「학가증법정동귀(鶴歌贈法正東歸)」는 법정(法正)²⁵⁾ 정법조가 동쪽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을 대신해 학가를 지어 이별의 선물로 대신한 송별기록이다. 이 글은 『석북집』 권8에 들어 있지만 내용상의 차이도 약간 있고, 석북의 자필로 쓴 송별기록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 글의 서지적 분석 및 내용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0) 백승호, “해좌 정법조 한시의 상고성(尙古性)과 기신(機神)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19권(2011), 247. ; 李敬儒, 『창해시안(滄海詩眼)』 권상, 62則.

“石北與海左游於驪江之巒巒寺, 時秋雨新晴, 明月初生. 石北有詩曰: ‘寒多白塔三更出 霧盡青山兩岸來’; 海左有詩曰: ‘長江一面朦朧出 風檣東頭宛轉來’ 世之言兩詩之優劣者, 率皆右石北, 余獨以海左爲優. 蓋石北之詩, 清爽過之, 故易爲驚動人, 而終不若海左之自然.”

21) 신장섭, “석북 신광수의 증시(贈詩)를 통한 교유층과 인간애의 고찰,” 『강원인문논총』 14(2005), 58.

22)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안산문화대전, 신광수(申光洙). [검색일자 2017. 5. 7.]

<http://an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ansan&dataType=01&contents_id=GC02500598>

23) 최경춘, 『18세기 문인들의 서예론 탐구』 (한국학술정보, 2009),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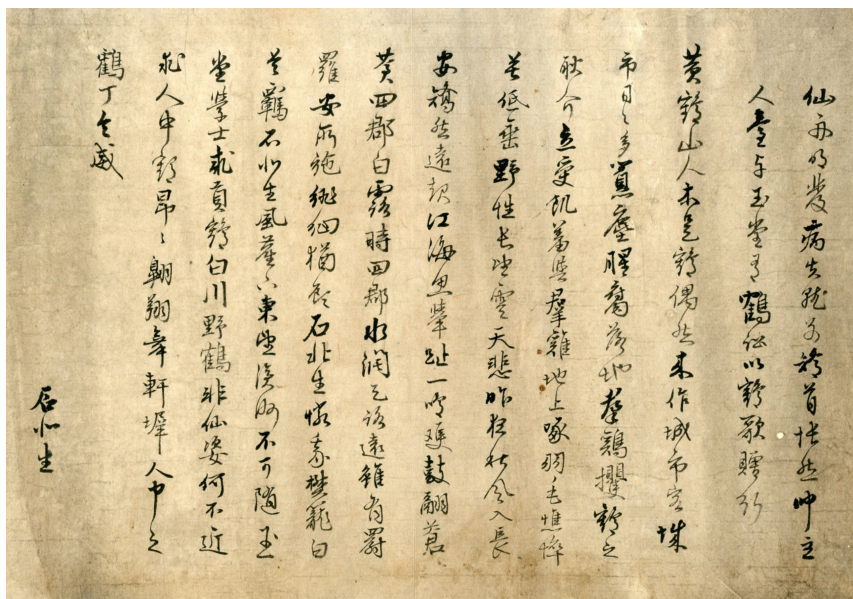
24)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안산문화대전, 신광수(申光洙). [검색일자 2017. 5. 7.]

<http://an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ansan&dataType=01&contents_id=GC02500598>

25) 법정(法正)은 정법조(丁範祖)의 자(字)이다.

3.1 서지적 분석

이 『학가증법정동귀』는 석북 신광수가 영조 40년(1764)경²⁶⁾에 법정(法正) 정법조가 동쪽으로 돌아갈 때 이별의 슬픔을 담아 서술한 것이다. 석북의 자필본은 깨끗이 정서된 것이고, 『석북집』 권8에 실린 글은 문집이 작성될 당시 일부 수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필첩의 원래 크기는 26cm(세로) × 37.5cm(가로)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학가증법정동귀(鶴歌贈法正東歸)」의 원본기록

필사본 전체는 14줄인데 부제목 2줄, 본문 11줄, 끝에 ‘石北生’이라고 써여 있어 신광수가 저작자 겸 필서자임을 알 수 있다. 전체 글자 수는 부제목 27자, 본문 110자이고, 끝에 저작자 겸 필서자를 나타내는 글자가 3자이다. 신광수의 송별기록은 자필의 정서본(淨書本)이다.











석북의 글씨에 대해서는 『석북집』 권16 행장에 의하면, 작은 해서체(小楷)와 행서를 잘 썼고 글씨체는 매우 주미(滄媚: 씩씩하고 아름다움)하였다. 술을 즐기며 글씨를 쓰면 필의가 순화각첩(淳化刻帖)²⁷⁾의 고법(古法)에 가까웠고, 이러한 특징은 특히 편지의 작은 초서체에서 잘 드러났다.²⁸⁾

26) 이 글은 『석북집(石北集)』 권8에 실려 있다. 권8에는 기년(紀年)을 밝힌 작품이 적고 저작 시기도 뚜렷하지 않으나 영조 40년(1764) 제주에서 돌아온 뒤 선공감(繕工監) 봉사 등을 역임하며 서울 부산 자락에 기거하던 시절의 작품으로 보인다.

27) 중국 송(宋)나라 태종 순화(淳化) 3년(992)에, 내부(內府)에 소장(所藏)되어 있던 역대 명필가의 문장을 골라내어 순화각에 모아 놓고 한림 시서(翰林侍書) 왕저(王著)에게 명하여 새기게 한 법첩(法帖)으로 10권이다.







28) 申光洙, 『석북집(石北集)』 권16, 行狀.

석북은 이 송별기록에서 ‘소행반초(小行半草)’의 특징인 작은 행서체와 초서체를 잘 썼고, 행초서는 위에서 지적한 순화각첩의 고법 중 왕희지의 필법에 가까우면서도 일부 글자에서는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희지 글씨체의 행서와 해서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글씨들이 많다. 이러한 글씨체 중 가장 많이 보이는 글씨가 ‘학(鶴)’이다. 왕희지의 행서체의 ‘학(鶴)’은 『운장서법자전(云章書法字典)』을 참조하면 이다. 이 글씨체를 표본으로 하고 석북의 송별기록의 글씨체를 참조하면 <그림 1>에 표집된 바와 같다. 왕희지 글씨체의 행서는 1) 2행 7열의 , 7) 11행 10열의 , 9) 13행 1열의  3종이다. 이들 글씨체는 석북의 장점인 행서체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필세에 강한 힘을 주어 골격을 갖추고 있고, 붓의 움직임에 따라 글씨의 굵기와 가늘기를 조절하였으며, ‘조(鳥)’ 부(部)의 마지막 갈고리 획과 사점(四點)의 처리에 있어서 멋을 부려 모양이 각기 다르다. 초서는 2) 2행 10열의 , 3) 3행 2열의 , 4) 3행 7열의 , 5) 4행 14열의 , 6) 11행 6열의 , 8)의 12행 4열 의 6종이다. 초서의 자체는 유연하면서도 거칠다. 행서와 같이 붓의 움직임에 따라 글씨의 굵기와 가늘기는 달라지고 글자의 골격은 비슷하지만 구현된 글자체는 각기 고유한 개성이 들어있다.

<표 1> 『운장서법자전(云章書法字典)』 및 송별기록 중 ‘鶴’의 글씨체 사례

구분	『운장서법자전』의 글씨	1) 2행 7열	2) 2행 10열	3) 3행 2열	4) 3행 7열
『운장서법자전』 및 송별기록 ‘鶴’의 글씨체					
구분	5) 4행 14열	6) 11행 6열	7) 11행 10열	8) 12행 4열	9) 13행 1열
송별기록 ‘鶴’의 글씨체					

둘째, 왕희지(王羲之)체 글씨첩 중 당(唐) 회인(懷仁)의 『대당삼장성교서(大唐三藏聖教序)』²⁹⁾의 행서체의 필법에 가까운 필의는 <표 2>에 비교한 바와 같이 , , , , , 이다. 이들 글씨체는 왕희지의 글씨체만큼 격조 있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운필의 기운은 유연하면서 강약의 조절을 하여 맛갈스럽다.

“... 公未嘗以筆名。小楷半行。頗適媚。每酒酣落筆。字體蕭散。往往逼淳化古法。尤善於東牘詞翰小草。”

29) 당(唐)나라의 회인(懷仁)은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672년에 왕희지(王羲之, 307-365)의 필적 중에서 집자(集字)하여 세운 ‘대당삼장성교서비(大唐三藏聖教序碑)’이다.

<표 2> 송별기록 중 「대당삼장성교서(大唐三藏聖教序)」의 행서 글씨체의 비교

구분	東	羅	露	生	人	之
송별기록 글씨						
「대당삼장성교서」의 글씨						

셋째, 왕희지(王羲之)체 글씨첩 중 「왕희지정초천자문(王羲之正草千字文)」³⁰⁾의 초서체의 필법에 가까운 필의는 <표 3>에 비교한 바와 같이 明, 堂, 行, 黃, 群, 夜, 思, 天, 路, 徘, 徊, 石 등이다. 이들 글씨체 중 明, 黃, 之, 詒, 石의 글자는 왕희지의 글씨에 거의 가깝게 썼고, 堂, 行, 羣, 夜, 思, 徊, 徊는 왕희지의 글씨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도록 운필의 기운과 강약의 조절이 더 유연하고 섬세하다.

<표 3> 송별기록 중 「왕희지정초천자문(王羲之正草千字文)」의 초서 글씨체의 비교

구분	明	堂	行	黃	群	夜
송별기록 글씨						
「왕희지정초천자문」 글씨						
구분	思	天	路	徘	徊	石
송별기록 글씨						
「왕희지정초천자문」 글씨						

30) 서울 송원문화사편집부(松園文化社編輯部)에서 1975년에 韓·中·日名筆書藝叢書 13으로 편집한 것이 「왕희지정초천자문(王羲之正草千字文)」이다.

3.2 내용 분석

신광수의 『학가증법정동귀』는 영조 40년(1764)경 법정 정범조가 동쪽으로 돌아갈 때 이별을 앞두고 송별시의 형식에 맞게 잘 쓰인 글이다. 현재 남아 있는 석북의 자필본은 깨끗이 정서된 것이고, 문집에 실린 글은 문집이 작성될 당시 일부 수정되어 『석북집』 권8에 실려 있다. 석북이 자필로 쓴 원문의 기록과 문집의 내용을 <표 4>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석북의 자필 원문 기록과 문집의 내용 비교

구분	석북의 자필 원문 기록	『석북집』 권8의 내용
제목	제목 없음	鶴歌 贈法正東歸
부제목	仙舟明發에 病失就別하야 矯首悵然이라 聞主人臺 與玉堂有鶴訟이라하야 以鶴歌贈行이라	仙舟明發。病失就別。矯首悵然。聞主人秀五正言。 與玉堂有白川鶴訟。以鶴歌送行
본문	黃鶴山人本是鶴일새 偶然來作城市客이라 城市日日多囂塵하고 腥腐落地羣鷄攪이라 鶴之耿介立受飢이언정 羞與羣鷄地上啄이라 羽毛憔悴苦低垂나 野性長望雲天悲라 昨夜秋風入長安하야 矯然遠起江海思라 舉趾一鳴雙鼓翻이니 蒼蒼四郡白露時라 四郡水濶天路遠하야 雖有尉羅安所施아 徘徊猶顧石北生하니 憐我樊籠白首羈라 石北生風塵下에 東望滄洲不可隨라 玉堂學士求貢鶴하니 白川野鶴非仙姿라 何不近求人中鶴가 昂昂翺翺舞軒握하니 人中之鶴丁令威라	黃鶴山人本是鶴일새 偶然來作城市客이라 城市日日多囂塵하고 腥腐落地羣鷄攪이라 鳶之耿介立受飢이언정 羞與羣鷄地上啄이라 羽毛憔悴苦低垂나 野性長望雲天悲라 昨夜秋風入帝城하야 矯然遠起江海思라 舉趾一鳴雙鼓翻이니 蒼蒼四郡白露時라 四郡水濶天路遠하야 雖有尉羅安所施아 徘徊猶顧石北生하니 憐我樊籠白首羈라 石北生風塵下에 東望滄洲不可隨라 玉堂學士求貢鳶하니 白川野鶴非仙姿라 何不近求人中鶴가 昂昂翺翺舞軒握하니 人中之鶴丁令威라
번역	<p>신선이 탄 배가 내일 출발한다고 하니 병 때문에 나아가 이별하지 못하고 머리를 들어보니 너무 섭섭했다. 주인 수오(秀五, 兪恒柱³¹⁾) 정언이 옥당에 참여하여 황해도 배천(白川)에 학송(鶴訟)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학가를 지어 보냈다.(『석북집』 권8의 부제에 의거함.)</p> <p>황학산의 정범조는 본래 학 같은 인물이었는데, 우연히 이곳에 와서 도시 한양의 객이 되었다. 성시는 매일 시끄럽고 비린내 나고 썩은 것이 땅에 떨어지면 여러 닭들이 움켜쥐려하네. 학의 변함없는 지조는 서서 굶주릴지 언정 여러 닭과 땅 위의 모이 쪼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네.</p> <p>깃털에 힘이 빠져 괴롭게 머리를 늘어뜨리나 학의 본성은 길이 구름 저 끝 하늘을 바라보며 슬퍼하였지. 어제 밤 가을바람에 장안으로 들어와서 멀리 살았던 곳을 갑자기 생각하며 발꿈치를 들고 한 번 양 날개를 치면서 우니, 창창한 사군으로 날아갈 때는 흰 이슬이 내릴 때라. 사군은 물이 넓어서 하늘 길도 머니 아무리 그물이 있을들 어떻게 그물을 치겠는가?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석북 신광수의 삶을 돌아보는데 내가 새장에 갇혀 머리가 허영게 된 걸 가련히 여겨서이네. 동쪽으로 창주(滄洲, 주희가 강학하던 창주정사(滄洲精舍)를 가리킴)를 바라보며 따를 수 없네. 옥당학사 학을 바치라고 요구하니 황해도 배천의 야학은 신선한 자태가 아니라 어찌 가까이 있는 사람 중의 학을 구하지 않는가? 뛰어난 사람이 대궐에서 춤을 추니 사람 중의 학은 정령위더라. (번역은 원문에 의거함.)</p>	

31) Daum 백과,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유향주(兪恒柱). [검색일자 2017. 5. 10.]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c_A1730_1_0031940>

유향주(兪恒柱, 1730-미상)는 조선 후기 문신이다. 자는 수오(秀五)이고,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영조 32년

위 <표 4>의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문의 기록에는 제목이 없고, 문집에는 ‘鶴歌 贈法正東歸’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학가를 지어 법정(法正, 丁範祖³²)이 동쪽³³으로 돌아갈 때 주다.’라는 뜻이다.

둘째, 부제목은 원문에 ‘仙舟明發 病失就別 矯首悵然 聞主人臺與玉堂有鶴訟 以鶴歌贈行’인데 문집에는 ‘仙舟明發 病失就別 矯首悵然 聞主人秀五正言 與玉堂有白川鶴訟 以鶴歌送行’이다. 교정된 부분을 보면 ‘聞主人臺與玉堂有鶴訟’이 ‘聞主人秀五正言 與玉堂有白川鶴訟’인데, 이는 문집에 실을 때 대간의 자인 수오(秀五)를 넣어 유향주(兪恒柱)임을 알수 있도록 하였고, 학송(鶴訟) 앞에 황해도 배천(白川)을 넣어 어느 지역의 학송인지를 분명히 하였다. ‘以鶴歌贈行’이 ‘以鶴歌送行’으로 바뀌었는데, ‘贈行’과 ‘送行’은 뜻이 비슷하여 교정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

셋째, 본문에서는 6행의 ‘鶴之耿介立受飢’가 ‘崑之耿介立受饑’로 9행의 ‘昨夜秋風入長安’이 ‘昨夜秋風入帝城’으로, 19행의 ‘玉堂學士求貢鶴’이 ‘玉堂學士求貢崑’로 바뀌었다. ‘鶴’이 ‘崑’로 바뀌었는데, 문장의 의미상 ‘鶴’이 맞고, ‘崑’는 섬의 뜻으로 연관성이 없는 글자이다. 문집을 간행할 때 일어난 실수로 여겨진다. ‘飢’와 ‘饑’는 뜻이 같은 자이고, ‘長安’과 ‘帝城’은 뜻이 비슷하여 교정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

넷째, 이 시는 칠언시 12운 23행이고 17행은 육언이다. 제1행부터 제6행까지는 약(藥)자 운동의 입성운자이며 제1행의 학(鶴), 제2행의 객(客), 제4행의 확(攬), 제6행의 탁(啄)이다. 제7행부터 제23행까지는 지(支)자 운동의 평성운자이며 제8행의 비(悲), 제10행의 사(思), 제12행의 시(時), 제14행의 시(施), 제16행의 기(羈), 제18행의 수(隨), 제20행의 자(姿), 제22행의 지(墀)이다.

(1756) 식년시에서 진사에 합격하였고, 영조 35년(1759) 식년시에서 을과로 문과 급제하였다. 영조 42년(1766) 정언(正言)에 임명되었고, 영조 44년(1768) 송취행(宋聚行) 등과 함께 지평(持平)에 임명되었다. 영조 48년(1772) 사예(司藝) 위홍조(魏興祖)가 상소를 올렸는데, 그 문장이 조잡하므로 임금의 하교에 따라 상소를 논과하여 위홍조를 파직시켰다. 또한 윤태연(尹泰淵)이 직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였는데, 이 사실을 간언하여 윤태연을 파직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임금에게 거짓을 아뢰었다는 죄목을 얻어서, 사관(仕版)에서 삭제를 당하였다.

32)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범조(丁範祖). [검색일자 2017. 5. 10.]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0246>>

정범조(丁範祖, 1723-1801)의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법정(法正), 호는 해좌(海左)이다. 원주 법천에 세거하였다. 영조 35년(1759) 진사시에 합격한 뒤 성균관 유생이 되었다가, 마침 동궁(東宮: 思悼世子)을 비난하는 유소(儒疏)가 바쳐지자 이에 반대하였다. 영조 39년(1763)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해 사직서직장(社稷署直長)이 되었다. 영조 47년(1771) 갑산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이조좌랑에 서용되고 옥구현감을 거쳤다. 영조 49년(1773) 우의정 원인손(元仁孫)의 천거로 동부승지에 발탁되었고, 그 뒤 공조참의·풍기군수를 역임하였다. 정조 5년(1781) 동부승지로 서용되고, 대사간을 거쳐 풍천부사가 되어 사직하였다. 정조 12년(1788) 예조참의로 서용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정조 16년(1792)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나이가 많음을 들어 치사(致仕)를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고 예조참판·개성유수·이조참판 등에 차례로 제수되었다. 2년 후 지돈녕부사가 되어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가면서 형조판서에 승진, 지춘추관사를 겸임하였다. 그 뒤 78세가 되던 정조 말년까지 조정에 머물며 예문관·홍문관의 제학으로서 문사(文詞)의 임무를 맡았다. 정조 24년(1800) 정조가 죽자 정종행장찬술당상(正宗行狀撰述堂上)으로 뽑혀 만장 7을 10수를 지었으며, 이듬해 실록정찬집당상으로서 『정종대왕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순조 1년(1801)에 서거하였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33) 여기에서 동쪽이라는 것은 정범조가 원주 법천(法泉)에 세거하였으므로 원주 법천으로 추정된다.

이 칠언시는 의미상 세 단락으로 나뉜다. 제1행부터 제6행까지는 정범조를 학 같은 인물에 비유하고 있다. 그는 한양의 객이 되어 시끄럽고 비린내 나는 곳에서 경쟁하며 살았다. 하지만 학의 변함없는 지조는 여러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제7행부터 제14행까지는 한양에서 경쟁하며 살면서도 학의 본성은 구름 저 끝 하늘을 바라보며 슬피하였다. 멀리 살았던 곳을 생각하고 양 날개를 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니 누구인들 그를 제어하지 못하였다. 제15행부터 23행까지는 석북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새장에 갇혀 머리가 허영게 된 것이 가련하였고 정범조가 가는 곳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없었다. 유향주가 옥당에 참여하여 황해도 배천의 야학을 이야기했지만 대궐에 있었던 그대가 진실로 학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4. 결 론

석북 신광수의 송별기록 「학가증법정동귀」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광수의 본관은 고령이고 자는 성연, 호는 석북, 오악산인이다. 영조 26년(1750)에 진사 급제를 하였다. 영조 37년(1761)에 음직으로 영릉참봉을 제수 받았다. 영조 48년(1772)에 기로정시에 장원하여 승지를 제수 받았고, 이어 돈녕부도정, 영월부사가 되었다. 영조 51년(1775)에 우부승지를 제수 받았다. 그해 4월 장릉제관으로 차출되었다가 26일 64세로 사망하였고, 6월에 한산 선영에 장사 지냈다. 저서로 『석북집』 16권 8책과 『석북과시집』 1책이 전한다. 신광수는 조선조 후기의 남인시단의 대표적인 시인이었고, 이현경은 신광수를 ‘시호(詩豪)’라 하였다. 그에게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가져다 준 시는 35세이던 영조 22년(1747) 가을 한성시에서 이등으로 합격한 과시 「관산용마」였다. 기녀 모란이 창으로 부르면서 이후 서도지방의 시창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석북은 해포 강박과 하정 이덕주와 사우(師友) 간으로 지냈고, 동운 이성회와는 가장 막역했던 사이였다. 특히 영조 50년(1774) 체제공이 평양감사로 부임하게 되자 「관서악부」를 지어서 전별의 선물로 주었는데 악부체시의 대표적 작품이다. 해좌 정범조와 주고받은 시는 「여강록(驪江錄)」에 남아 있다. 이외에도 평생 안산을 중심으로 교유한 ‘안산십오학사’들도 있다. 그는 ‘해동의 백낙천’이라는 별호가 붙을 정도로 시문에 뛰어났으며, 남인 중심의 지배층을 비롯하여 양인, 천민, 노비, 기생들을 포함하는 피지배층과도 어울려 시를 짓고, 교유한 사람들에게는 시를 지어 주었다.

2) 이 「학가증법정동귀」는 석북 신광수가 영조 40년(1764)경에 법정(法正) 정범조가 동쪽으로 돌아갈 때 이별의 슬픔을 담아 서술한 것이다. 자필본은 깨끗이 정서된 것이고, 『석북집』 권8에 실린 글은 문집이 작성될 당시 일부 수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필첩의 원래 크기는 26cm(세로) × 37.5cm(가로)이다. 필사본 전체는 14줄인데 부제목 2줄, 본문 11줄, 끝에 ‘石北生’이라고 써어 있어 신광수가 저작자 겸 필서자임을 알 수 있다. 석북은 이 송별기록에서 ‘소행반초(小行半草)’의 특징인

작은 행서체와 초서체를 잘 썼고, 행초서는 위에서 지적한 순화각침의 고법 중 왕희지의 필법에 가까우면서도 일부 글자에서는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있다. 첫째, 왕희지 글씨체의 행서와 해서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글씨체 중 가장 많이 보이는 글씨가 ‘학(鶴)’이다. 鶴, 鶴, 鶴 3종은 석북의 장점인 행서체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초서는 勢, 勢, 勢, 勢, 勢, 勢의 6종의 초서의 자체는 유연하면서도 거칠다. 둘째, 왕희지(王羲之)체 글씨첩 중 당(唐) 회인(懷仁)의 『대당 삼장성교서(大唐三藏聖教序)』의 행서체의 필법에 가까운 필의는 東, 羅, 露, 生, 人, 之이다. 이들 글씨체는 왕희지의 글씨체만큼 격조 있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운필의 기운은 유연하면서 강약의 조절을 하여 맛깔스럽다. 셋째, 왕희지(王羲之)체 글씨첩 중 『왕희지 정초천자문(王羲之正草千字文)』의 초서체의 필법에 가까운 필의 중 明, 黃, 乞, 詒, 石은 왕희지의 글씨에 거의 가깝게 썼고, 坐, 新, 卷, 存, 息, 細, 細는 왕희지의 글씨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도록 운필의 기운과 강약을 조절하여 더 유연하고 섬세하다.

3) 석북이 자필로 쓴 원문의 기록과 문집의 내용을 비교하면, 첫째, 원문의 기록에는 제목이 없고, 문집에는 ‘鶴歌 贈法正東歸’라고 제목을 붙였다.

둘째, 부제목 중 교정된 부분을 보면 ‘聞主人臺與玉堂有鶴訟’이 ‘聞主人秀五正言 與玉堂有白川鶴訟’인데, 이는 문집에 실을 때 대간의 자인 수오(秀五)를 넣어 유향주(兪恒柱)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학송(鶴訟) 앞에 황해도 배천(白川)을 넣어 어느 지역의 학송인지를 분명히 하였다. ‘以鶴歌贈行’이 ‘以鶴歌送行’으로 바뀌었는데, ‘贈行’과 ‘送行’은 뜻이 비슷하여 교정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 셋째, 본문에서는 6행의 ‘鶴之耿介立受飢’가 ‘寫之耿介立受饑’로 9행의 ‘昨夜秋風入長安’이 ‘昨夜秋風入帝城’으로, 19행의 ‘玉堂學士求貢鶴’이 ‘玉堂學士求貢寫’로 바뀌었다. ‘鶴’이 ‘寫’로 바뀌었는데, 문장의 의미상 ‘鶴’이 맞고, ‘寫’는 섬의 뜻으로 연관성이 없는 글자이다. 문집을 간행할 때 일어난 실수로 여겨진다. ‘飢’와 ‘饑’는 뜻이 같은 자이고, ‘長安’과 ‘帝城’은 뜻이 비슷하여 교정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 넷째, 이 시는 칠언시 12운 23행이고 17행은 육언이다. 제1행부터 제6행까지는 약(藥)자 운동의 입성운자이며 제1행의 학(鶴), 제2행의 객(客), 제4행의 획(擣), 제6행의 탁(啄)이다. 제7행부터 제23행까지는 지(支)자 운동의 평성운자이며 제8행의 비(悲), 제10행의 사(思), 제12행의 시(時), 제14행의 시(施), 제16행의 기(羈), 제18행의 수(隨), 제20행의 자(姿), 제22행의 지(墀)이다. 이 칠언시는 의미상 세 단락으로 나뉜다. 제1행부터 제6행까지는 정법조를 학 같은 인물에 비유하여 한양에서 벼슬하였지만 학의 변함없는 지조는 여러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제7행부터 제14행까지는 한양에서 경쟁하며 살다가 양날개를 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니 누구인들 그를 제어하지 못하였다. 제15행부터 23행까지는 석북 자신은 정법조가 가는 곳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없었다. 유향주가 옥당에 참여하여 황해도 배천의 야학을 이야기했지만 대궐에 있었던 그대가 진실로 학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백승호. “해좌 정범조 한시의 상고성(尙古性)과 기신(機神)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19권(2011), 223-253.
- 申光洙. 『석북집(石北集)』 권5, 「驪江錄」上, 「附法正詩」.
- 申光洙. 『석북집(石北集)』 권10, 詩.
- 申光洙. 『석북집(石北集)』 권11, 「與法正」.
- 申光洙. 『석북집(石北集)』 권14, 「祭苧亭李公文」.
- 申光洙. 『석북집(石北集)』 권16, 「行狀」.
- 신장섭. “석북 신광수의 증시(贈詩)를 통한 교유층과 인간애의 고찰.” 『강원인문논총』 14(2005), 45-73.
- 申章燮. “출사(出仕) 전까지 석북(石北)의 삶과 시의 면모.” 『語文論集』 41輯(2009), 185-214.
- 심경호. “관산용마의 형식과 주제사상.” 『어문논집』 59권(2009), 169-193.
- 沈慶昊. “18세기 중·말엽의 南人 문단.” 『국문학연구』 1권(1997), 145-206.
- 윤경수. “관산용마(關山戎馬)에 나타난 우국연민의 정 고찰.” 『우리문학회 제91회 정기학술발표회집』 (2009), 3-26.
- 李璜. 『가림이교(嘉林二稿)』 권4, 「祭石北申公文」.
- 李獻慶. 『간옹집(良翁集)』 권13, 「答李台甫承延論文書」.
- 蔡濟恭. 『번암집(樊巖集)』 권54, 「通政大夫承政院右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石北申公墓誌銘」.
- 최경춘. 『18세기 문인들의 서예론 탐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광수(申光洙). [검색일자 2017. 5. 7.]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32677>>.
- Daum 백과.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유향주(兪恒柱). [검색일자 2017. 5. 10.]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0c_A1730_1_0031940>.
-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범조(丁範祖). [검색일자 2017. 5. 10.]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0246>>.
-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안산문화대전. 신광수(申光洙). [검색일자 2017. 5. 7.]
<http://an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ansan&dataType=01&contents_id=GC02500598>.

